

“믿음이 없는 자는 구제할 수 없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4)

여래의 가르침 믿지 못한 선성 비구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시 때였다. 선성이라는 비구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초저녁에 천제석을 불러 여러 법요를 설명했다. 제자된 법에는 스승이 잠든 뒤에 잠을 자게 되어 있었다. 선성은 부처님이 오랫동안 설법을 하시며 잠자리에 들지 않자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왕사성에서는 부모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에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하던 말이 있었는데, ‘만약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너를 박구라 귀신에게 줘버리겠다.’였다.

“빨리 자고 싶었던 선성은 피를 내어 부처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박구라가 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석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저러한 사람을 부처님 법 안에 들도록 하셨으며, 시봉으로 두셨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 또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법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선성을 위하여 아무리 설법을 해도 그는 도무지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다. 부처님이 가시국의 시바부라성에 계시 때, 선성이 부처님 시봉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성에 들어가 걸식하면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우러르며 부처님의 발자국을 보고자 했다. 선성은 부처님 뒤를 따르면서 발자국을 지워 없애고, 지워 없애지 못할 때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착하지 않은 마음을 내도록 했다.

어느 날, 부처님과 함께 성 안의 주막에서 한 수행자가 홀로 앉아 술찌꺼기를 받아먹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선성이 말했다.

“세상에 만약 아라한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아라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라한이란 술도 마시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으며, 속이기도 않고 흠치거나 음행을 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너는 늘 듣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부모를 살해하고 술찌꺼기를 먹고 있거늘, 어찌 저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말하겠느냐? 저 사람이 몸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육에 떨어질 것이다. 아라한은 영원히 3악을 끊었거늘, 어떻게 이를 아라한이라 말하겠느냐?”

그러자 선성이 말했다.

“4대의 성품은 오히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아버지육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울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늘 듣지 않았느냐? 모든 여래는 말이 진실하여 두 말이 없다는 것을, 내가 비록 너를 위하여 설법했으나 너는 믿는 마음이 여전히 없구나.”

그리고 부처님은 선성에게 고득이라는 수행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늘 ‘중생의 번뇌는 인연이 없으며, 중생의 해탈 또한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넬 따름이다. 고득이 아라한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7일 후에 그는 음식을 먹은 뒤에 소화 가 되지 않다가 복통으로 죽게 될 것이다. 죽어서는 먹으면 토하는 귀신이 될 것인데, 그의 도반들이 그 시체를 실어다가 한림 속에 놓아둘 것이다.”

선성이 이내 고득을 찾아가 부처님과의 이야기를 전하고 고득에게 당부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세존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득은 복통을 염려하여 아예 첫날부터 옛새가 되는 날까지 식사를 끊었다. 이레가 되는 날 고득은 배가 고파서 흑미를 먹고 찬물을 마셨는데, 그만 복통이 나서 죽고 말았다. 그의 도반들이 그의 시신을 실어다 한림으로 옮겼는데, 그는 이내 먹으면 토하는 아귀의 형상이 되어 그 시체 곁에 있었다. 선성이 한림 속에 이르러서 고득의 시신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지금 죽은 것입니까?”

고득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죽었소.”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복통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의 시신을 여기까지 옮겨왔습니까?”

“나의 도반들이 옮겨왔습니 다.”

“지금은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나는 먹으면 토하는 귀신의 몸이 되었소. 옆에 있는 아귀가 안 보입니까?”

선성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고득 고쟁자는 삼십 삼천에 낫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라한이란 다시 나는 일이 없거늘, 어찌서 고득이 삼십삼천에 낫다고 말하는 것이냐?”

사악한 마음을 낸 선성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육에 떨어졌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번소 안에 빠졌다고 하자, 누군가 그를 보았을 때 얼른 손을 내민다면 금방 그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를 보았더라도 빨리 건져내지 못할뿐더러 잡아 올릴 것을 찾는 동안 점점 깊이 빠져들어 그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했다. 선성의 아주 작은 선근을 보고 중일도록 그를 구제할 방법을 찾았지만 머리털만한 것도 잡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그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대열반경) 제37권에 나온다.)

동국대경원 발행 (경물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삽화·강병호

그 말을 들은 선성이 말했다.

“이 세상에 만약 아라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고득이야말로 으뜸가는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고득이라는 수행자는 실로 아라한이 아니며 아라한의 도를 알지도 못한다.”

선성이 다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아라한이 아라한에게 질투를 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아라한에게 질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스스로 나쁘고 그른 소견을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③



종교가 주는 행복

만해 축전을 다녀오면서

만해마을에서 열린 2013년 제17회 만해축전에 다녀왔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만해 축제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가보게 되었다. 몇몇 도반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애초의 계획은 안동 용수사를 둘러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길에 청량사 계곡에서 조금 놀다가 지도를 잘못 보게되어 정암사를 먼저 가게 되었다. 너무 먼 길이었어서 다시 용수사로 돌아 올 수는 없어 정암사로 갔는데 여음이 짙어 짙은 그야말로 고요했고, 산 위의 수마노탑에서만 목탁소리와 기도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어두워 산을 오를 수 없어 수마노탑을 향해 합장하고, 내일 새벽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의 장작 찜질방에서 쉬기로 했다. 새벽 일찍 깨어 목을 씻고 정암사 수마노탑으로 갔다. 밤새워 기도하시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은 내려와 대기한 버스로 돌아가고 있었다. 너무나 한적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간 경전을 읽으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되었다. 수마노탑은 다른 곳의 탑과는 달리 돌을 벽돌처럼 깎고 잘라서 쌓은 7층 석탑이다.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안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72년 이탑을 해체복원 할 때 탑의 내부에서 사리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탑을 바라보고 있으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아쉬웠지만 우리는 만해마을로 향했다.

점심 식사 후 식당에 갔을 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매우고 있었다. 단상에는 합창단들의 아름다운 단체복 차림과 정리된 모습이 아름다웠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여기저기 사진도 찍으며 축제분위기가 한창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윽고 식이 시작되었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도지사 등 인사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수상자들이 차례대로 상을 받았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대한성공회 주교인신 김성수님이 상을 받고 선법문을 인용하여 소감을 밝혔다. 참 보기가 좋았다. 무엇보다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아 보였다. 상의 제목은 만해 평화 대상이다.

패들과 굴렌(터키 사상가 교육 평화운동가)를 비롯하여 수상자들이 상을 받았다. 사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왠지 우리 집 잔치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기분 좋았다.

천주교인의 49재 이야기

40년 전이었을까. 우연히 나를 따라 해인사를 같이 간 인연으로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는 도반이 있다. 패선 디자이니어 이영희다. 그녀는 천주교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불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도반이다. 더러는 사업상

이익을 바라고 나를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안다.

그녀는 언제라도 연락만 하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달려와 주고, 어떤 길든 동행해 준다. 매년 초과 일에는 빠짐없이 함께 절을 찾아 등을 달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49재를 모시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절에 다녔던 것 같다. 제법 먼 절이었다. 하동 석계사였다. 나와 동행하기를 위해 가까이 동행했다. 평소소 잘 알고 지내던 고객의 딸이 출가하여 있는 절이라고 했다. 가는 길 내내 그녀와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절은 깊은 산속에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절에 다녀오나 다른 식구들은 왠지 절집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많았고, 절도 서툴렀다. 그래도 고인을 위해 평소 찾지 않던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군소리 없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좋아보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고인의 종교를 존중해 49재를 지내는 모습이 다른 가족의 일이지만 왠지 흐뭇했다. 나에게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웃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반대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성숙된 종교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고인의 영정 위로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화요법회 도반들과

남천동 보리성 도반 집을 방문 하는 날이었다. 오래전부터 도반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해왔다. 내가 도착했을 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보리성 보살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신심 깊은 도반이다. 다른 도반들도 공부에 대한 열의로 가득했다.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 보니 계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좋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할 법문도 듣고 했었다.

강의가 끝나고 도반들이 나에게 신행담을 말해 달라고 했다. 준비 안 된 이야기지만 평소 불자로서의 생각과 삶을 이야기 하면서 나의 신행담을 이야기했다. 절이 아닌 집에서 기도해 해도 되는지, 집에 부처님을 모셔도 되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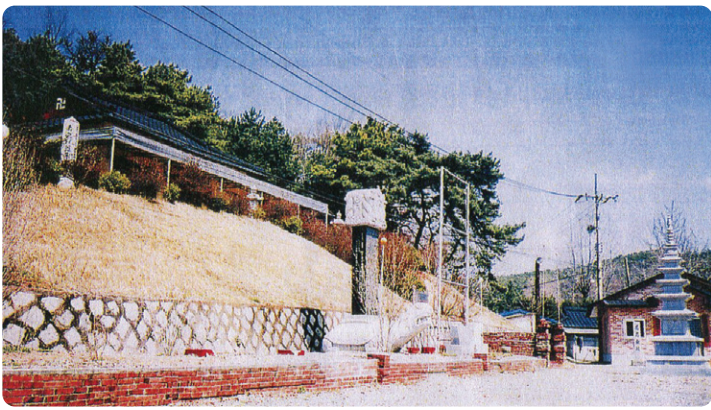
나는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으며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니 바쁜 일정으로 매일 절에 갈 수 없을 때는 집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불자의 씨앗이 탄탄히 영글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슴은 뚫다. 주변이 영적 불자로 가득해지길 말원하며 공부를 마쳤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급) 소식

평화통일사

소송 일선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어언 40년간 산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절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법사이신 조계종 중정을 3번 역임하신 윤고암 큰스님께서 간간히 도와주시고 속가 집안에서 5천만원을 차용하고 소송의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7천만원과 전 1억이상의 자금으로 가람을 만들었으며 2천평 황무지를 또 개발하여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탑을 건립하다 자금란으로 중단하여 이 불사를 완공하고자 신문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의논하고자 합니다.

사문 윤동암 씀.



- ◎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 ◎ 큰방 (부엌, 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 ◎ 1억 5천만원에 양도합니다.
- ◎ 인연을 기다립니다.
-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의] 스님 직접

010-9415-5818 / 031)952-7031

경기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76-35 (문산기상대 부근, 1570부대 입구)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접합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 심환중합양초 |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